

# 국힘 지도부 “‘희생 혁신안’ 공관위서 질서있게 반영”

### 혁신위원 박성중 의원 최고위 보고... “지도부 수용 타이밍 판단” ‘김기현 체제 중도하차론’에 “흔들지마” 차단막...김병민은 이견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지도부·중진·진운(진운석열)계 의원들의 총선 힘 지출 혹은 불출마를 권고하는 내용 등의 혁신안을 종합 보고하고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이 같은 혁신위 보고에 대해 당 지도부는 이날 중순 구성될 공천관리위원회 등에서 혁신안을 질서 있게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혁신위원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오후 최고위에 참석, ‘주류 희생’ 혁신안 등 그동안 의결했던 1~6호 안건을 종합 보고했다. 박 의원의 최고위 혁신안 보고는 약 3분 만에 끝났다.

앞서 혁신위는 이준석 전 대표 등에 대한 징계 취소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특권 배제, 청년 비례대표 50% 할당, 전략공천 원천 배제, 과학기술인 공천 확대 등의 혁신안을 마련했다. 혁신위는 당초 오는 24일이 활동 기한이었으나 주류 희생을 둘러싸고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다 출범 40여일 만에 조기 해산을 결정했다.

박 의원은 최고위 보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에 사전에 이런 내용이 보고될 것이라는 게 예기됐기 때문에 특별한 반응이 없었다”며 “혁신위는 원래부터 다양한 혁신안을 내놓는 거고 거기에 대한 액션이나 받아들이는 건 당에서 하는 것이다. 어떤 타이밍에 혁신안을 받아들이면 가장 좋을지 판단은 당 지도부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위는 김 대표를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당 혁신위는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부분을 짚고 제안 해줬다”면서 “(혁신안) 일부 현실 정치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까다로운 의제가 있으나 그 방향성과 본질적 취지는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거획단이 혁신위가 제안한 혁신 그 이상의 변화를 도입하기로 해 진행 중이고, 혁신위의 소중한 결과물이 당헌·당규에 따라 조만간 구성 예정인 공천관리위원회를 포함한 당의 여

러 공식 기구에서 질서 있게 반영되고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공개 최고위에서 혁신위 보고 후 김병민 최고위원은 “청년 공천, 공개 오디션 등 혁신위 제안 중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기체적으로 말고 최고위에서 의견을 좀 많이 답아서 공관위에 넘기자”고 제안했다.

이에 김 대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수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다하겠다”고 화답했다고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최고위원들은 자신들이 속한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한 공세에 적극적으로 방어막을 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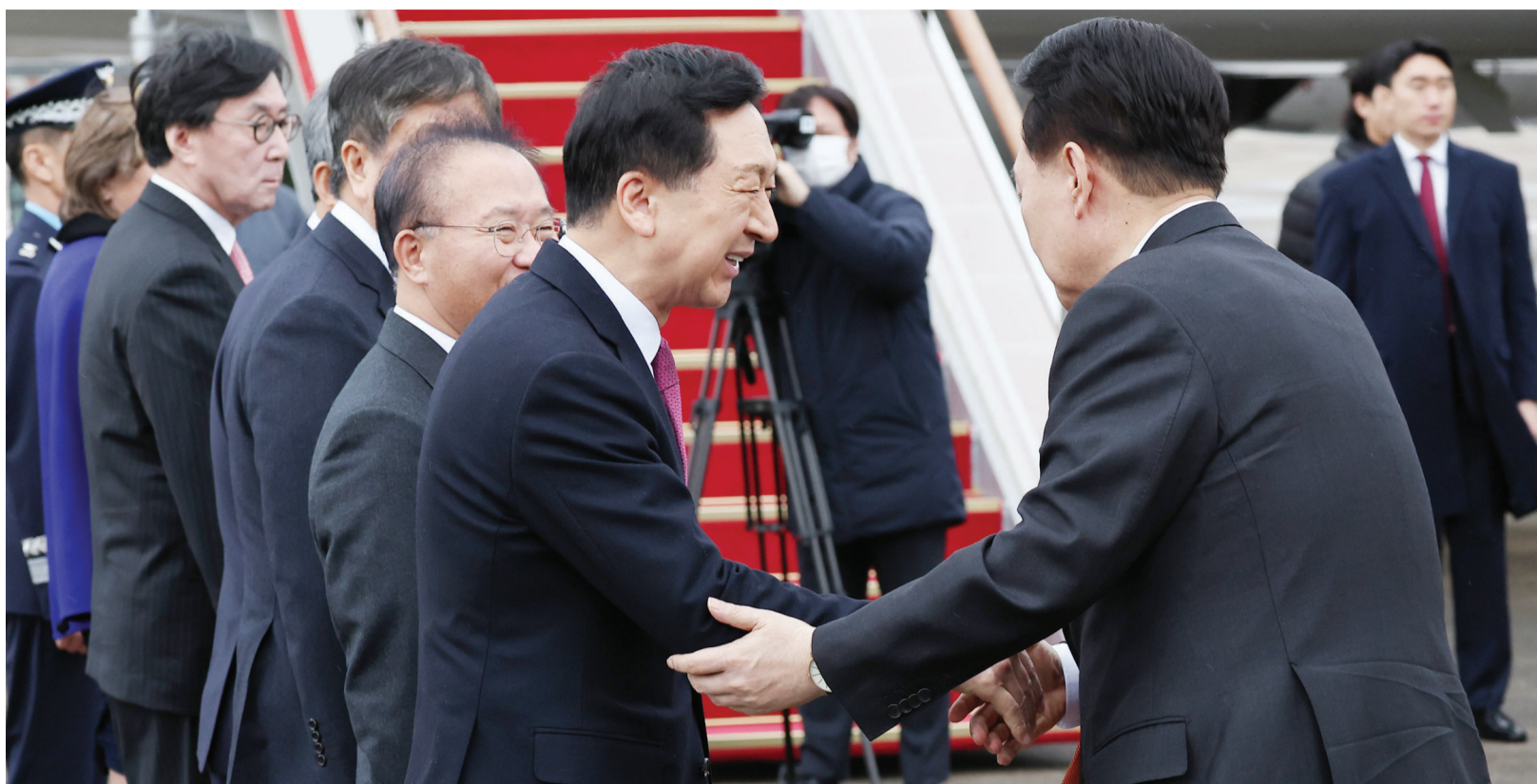
최근 지도부에 합류한 김석기 최고위원은 당내 일부 중진이 김 대표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정말 김 대표가 당장 물러나는 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일까. 대안 없는 지도부 흔들기를 멈춰야 한다”며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길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공천을 잘하는 것과 좋은 인재 영입에 더 많은 공을 들이는 것”이라며 “단합”을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혁신위 제안과 관련해 ‘인요한 혁신위가 그간 의미 있는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셨고 공관위에서 그 뜻이 잘 반영되게 하겠다’고 입장을 몇 차례 밝혔다. 혁신위가 제기한 희생 키워드는 공관위에서도 적극 반영될 것”이라며 김 대표에 힘을 실었다.

다만 김병민 최고위원은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는 “혁신위의 헌신적 노력에도 우리 당 지도부가 그에 걸맞은 호응을 하지 못했다는 세간의 지적이 매우 뼈아프게 다가온다”면서 “인 위원은 과거 혁신이라는 게 100점 아니면 0점 밖에 없다고 했다. 우리 당의 혁신 성적표는 100점과 0점 중 대체 어디에 속해 있나”라고 반문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세력화 불 지피는 이준석·이낙연 공동신당 가능할까

### 이념적 교집합 찾기 어려워 “사쿠라” “낙석 주의” 비난도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신당 창당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두 사람의 연대 및 신당 창당 시나리오를 놓고 엇갈린 전망을 내놓았다. 양당의 전직 대표를 지낸 두 사람이 창당할 경우 제3세대 구심점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이념적 교집합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손을 잡기가 쉽지 않고 창당하더라도 융두사이에 그칠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미 창당을 기정사실로 한 상태다. 이 전 대표가 공언한 마지노선은 오는 27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과 당정 관계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없을 경우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예고해왔다. 최근에는 총선 출마 희망자도 모집했다. 그러나 관건은 현역 의원을 포함한 기존 여권 인사들의 합류 여부다. 이 전 대표의 측근 4인방을 칭하는 ‘천아 용인’ (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그룹에서도 탈당 및 신당 창당에는 적극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주류는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공천 국면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 수단이라는 것이 여권 주류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이 개최한 포럼 자리에서 창당 가능성을 열어 놓은 뒤, 지난 8일 언론 인터뷰에서는 “도움닫기가 필요한 단계”라며 사실상 신당을 준비 중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는 지금까지 ‘이재명 사당화’를 비판하며 개선을 요구했으나, 뚜렷한 응답이 없다고 보고 더는 당에 남을 이유가 없다는 명분을 확보해가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신당은 물론 공동

신당의 성공 확률을 높게 점치지 않는 분위기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11일 신당 창당을 모색 중인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 ‘사쿠라 노선’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이 전 대표의 창당 움직임에 두고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집중하지 않고 당내 문제에 (비난을) 돌리거나 정확하게 시대의 과제가 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쿠라 노선’”이라며 “정쟁이 나쁜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같은 프로그램에서 두 전직 대표의 연대 가능성과 관련해 “낙석 연대가 아니라 ‘낙석 주의’가 된다. 주의해야 한다”고 평가절하했다. 같은 당 이상호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날 수 있다고 시사한 건 실책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의 대표, 문재인 정부 총리를 역임하신 분이 할 발언은 아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정치적 교집합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정세균, 이낙연 등 3총리 연대설에 “그런 것 없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1일 더불어민주당 당내 갈등 상황과 관련, “나는 항상 통합론자, 통합주의자”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김영주 국회의장 책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나는 당 대표 할 때도 그렇고, 민

주당 정당 활동을 하면서도 대화와 통합을 항상 제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출판기념회 추사에서 “많은 분이 민주당을 걱정한다. 민주당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며 “달리 보면 여당은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국민 여러분이 정치를 보는 시각이 평

장히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와 조만간 만날 것이냐는 질의에는 “나는 민주당 주요한 분들, 심지어 민주당이 아닌 분들하고도 나라 걱정을 하기 위해서 는 보자고 하면, 아니면 내가 요청해서 항상 만난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그는 그러나 정세균·이낙연·김부겸 등 문재인 정부 3총리의 연대설에 대해선 “그런 것 없다”고 일축하며, 유력 인사들과 만날 때는 개별적으로 만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尹 지지율 37.4%...대구·경북서 7.2%p 내려

### 리얼미터...국힘 37%·민주 43%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후반대를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 18세 이상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직전 조사 대비 0.2%포인트(p) 내린 37.4%를 기록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7.2%p ↓), 광주·전라(1.9%p ↓), 인천·경기(1.9%p ↓), 부산·울산·경남(1.3%p ↓)에서 하락하고, 서울(5.8%p ↑), 대전·세종·충청(2.7%p ↑)에선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60대(2.7%p ↓)와 50대(2.0%p ↓)에서 내렸고, 40대(3.2%p ↑)와 30대(1.3%p ↑)에선 상승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3.3%p ↓)에서 하락했고,

보수·중도층에선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와 같은 59.2%였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0%다.

이와 함께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1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4.0%p 오른 37.9%, 더불어민주당이 0.1%p 내린 43.7%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5%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20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도움이 필요한 느린학습 아동이 '나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교사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아동 지원내용**

-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중 인지·학습·정서·사회성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
- 전문인력(현장교사) 양성 및 파견**  
느린학습자 특화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1명의 현장교사가 파견
-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인지·학습 강화 프로그램(주 2회)
  - 정서·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주 1회)

**사업수행체계**

지원 : 복권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권기금)  
관리·사업수행 : 남부대학교,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사업참여 : 지역아동센터 40개소, 참여아동 160명

**아동지원체계**

현장교사양성 ▶ 지역아동센터파견 ▶ 아동 프로그램지원 ▶ 사회 구성원의 기본 역량 향상

본 사업은  
남부대학교가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지원으로  
경제선지능아동(느린학습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사회적 가치 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복권위원회  
사랑의열매